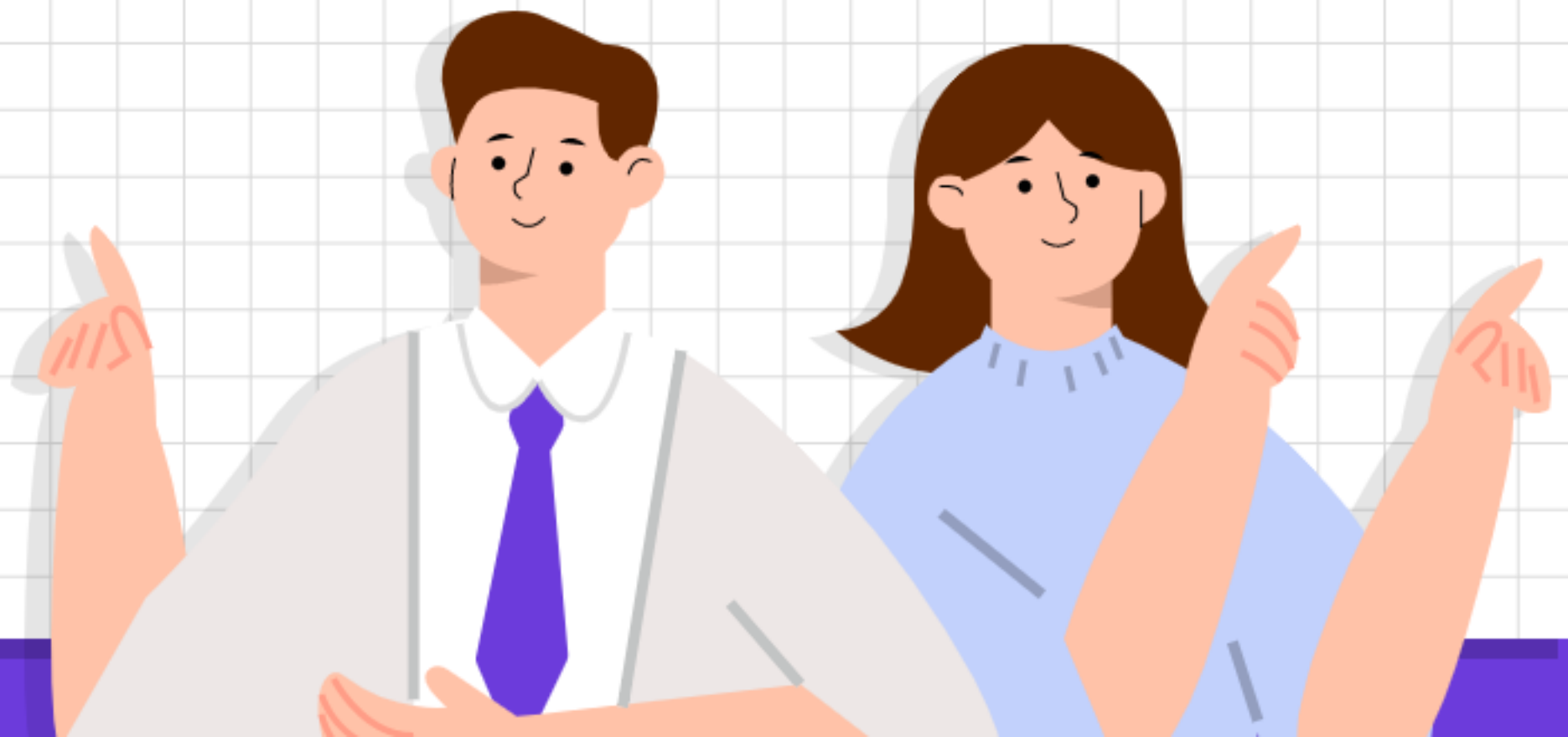


2020년

코로나19 '사회적 거리두기' 기간

복지관 이용자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



01

코로나19 복지관 이용자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

조사 개요

1 조사 대상 : 복지관 이용 장애인 264명

※ 일반서비스 이용자 167명, 취업장애인 50명, 아동 영역 47명
(전체 설문지 배포대비 94.5% 수거)

2 조사 시기 : 2020. 5. 13(수) ~ 5. 29(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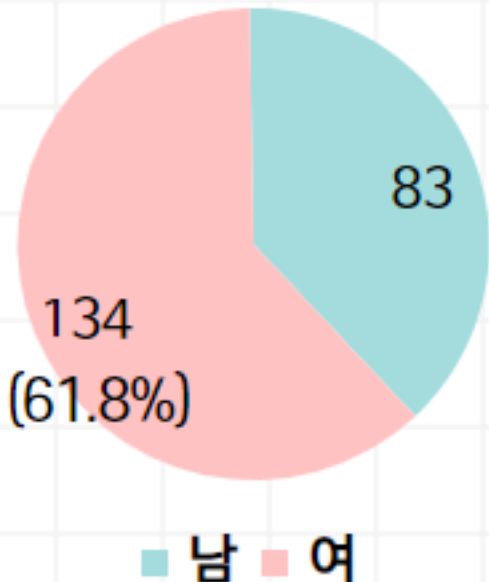
3 조사 내용

코로나19 인식 및 정보접근 사항(4),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(6), 코로나19 장기화 시 복지서비스 욕구(3), 취업현장 관련(3), 아동영역(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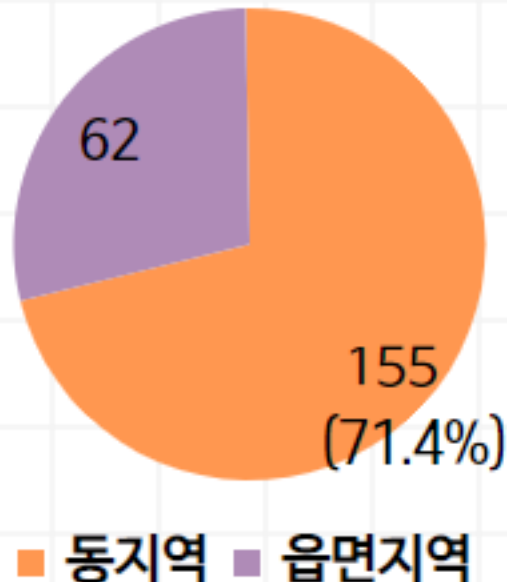
4 조사 방법 : 대면조사(일반, 취업), 온라인 설문조사(아동)

인구통계학적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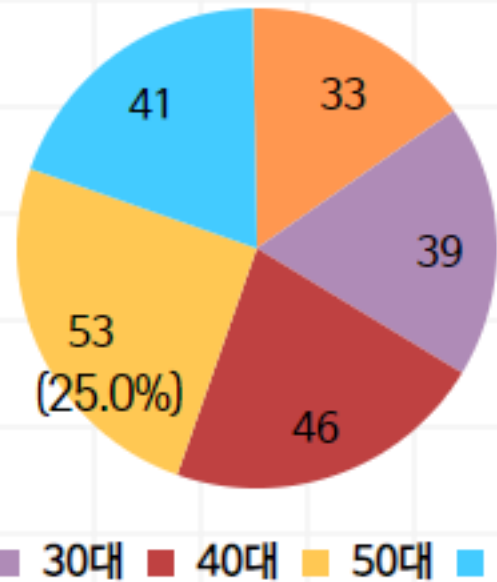
응답자 성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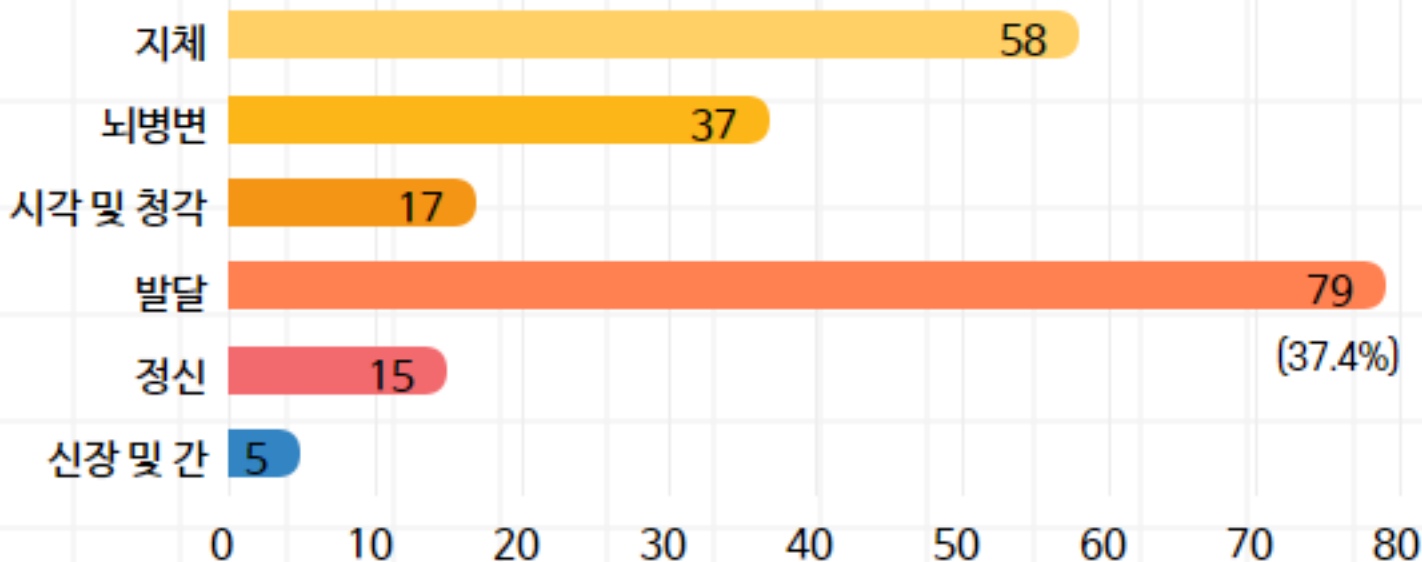
응답자 거주지



응답자 연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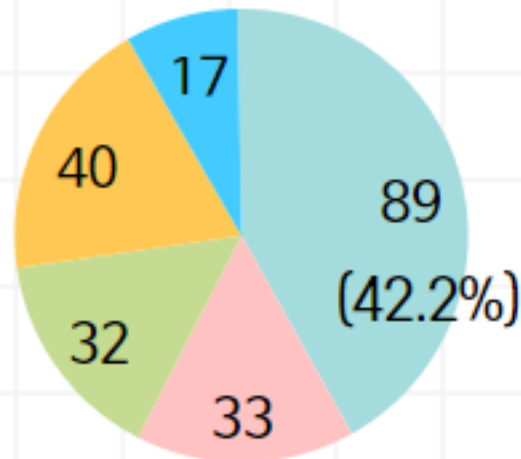


장애 유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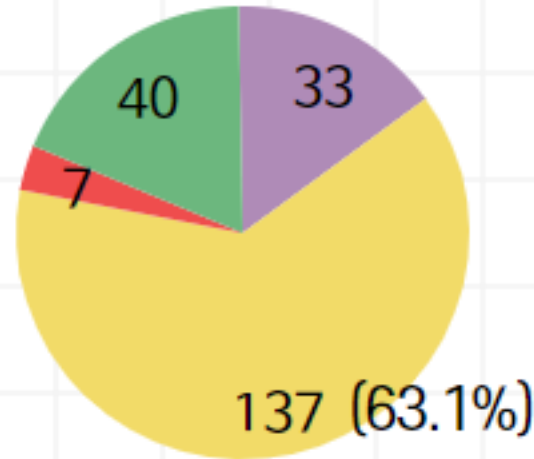
코로나19 인식 및 정보접근

☛ 코로나19에 대한 관심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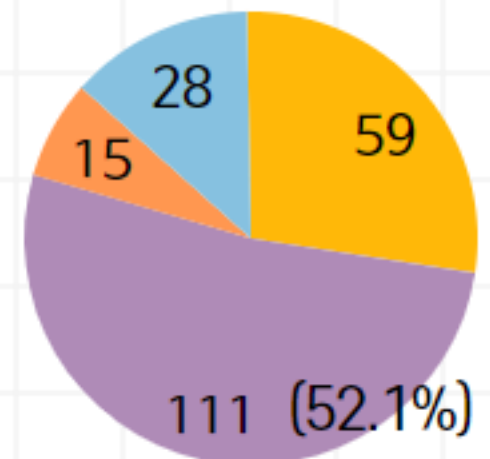
■ 매우있음 ■ 조금있음 ■ 보통
■ 조금없음 ■ 매우없음

☛ 코로나19 정보습득경로



■ 가족 및 지인 ■ 신문 및 TV
■ 행정기관 ■ 인터넷

☛ 코로나19 위험 인지도



■ 무서운질병 ■ 예방방법준수
■ 위험하지않음 ■ 정부지시따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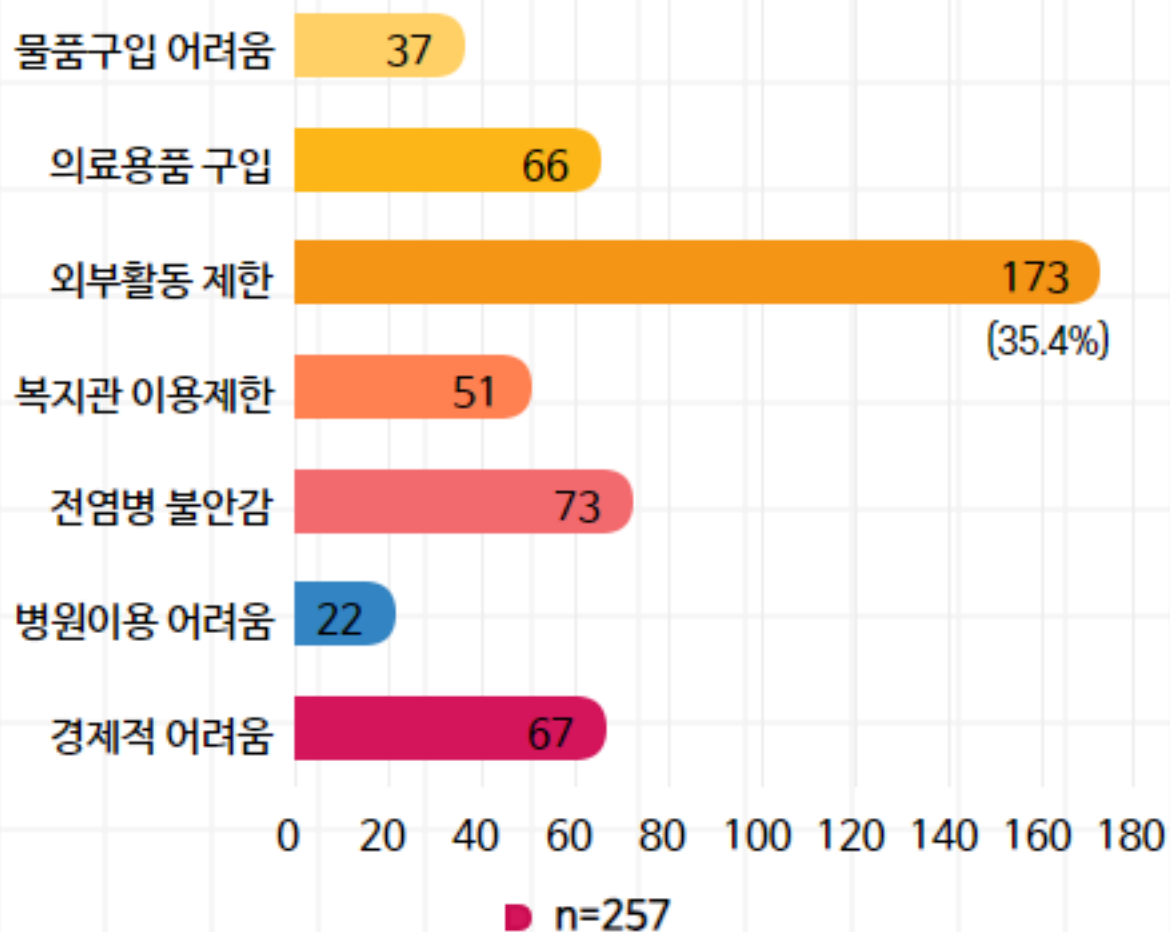
5점척도 장애유형별 교차분석
 - 신체적 장애인 4.1점
 - 정신적 장애인 3.1점

신문 및 TV가(63.2%)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(18.4%), 가족 및 지인(15.2%)

위험하지만 예방방법을 잘 지키면 괜찮다(51.2%)
 외출하기 어려운 무서운 질병이(27.2%)

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

☛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장 불편한 점



응답자 257명에 대한 1, 2순위 다중응답 합산 값을 제시한 결과임.

장애유형별 교차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, 전반적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이 35.4% 가장 많았으며,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 14.9%, 의료용품 구입 13.5% 순으로 조사됨.

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

☛ 코로나19 기간 지원물품 수령 여부

거주지역	긴급지원물품 수령 여부		전체	p
	있음	없음		
동지역	79(51.6)	74(48.4)	153(100)	0.000
읍면지역	48(77.4)	14(22.6)	62(100)	
총계	127(59.1)	88(40.9)	215(100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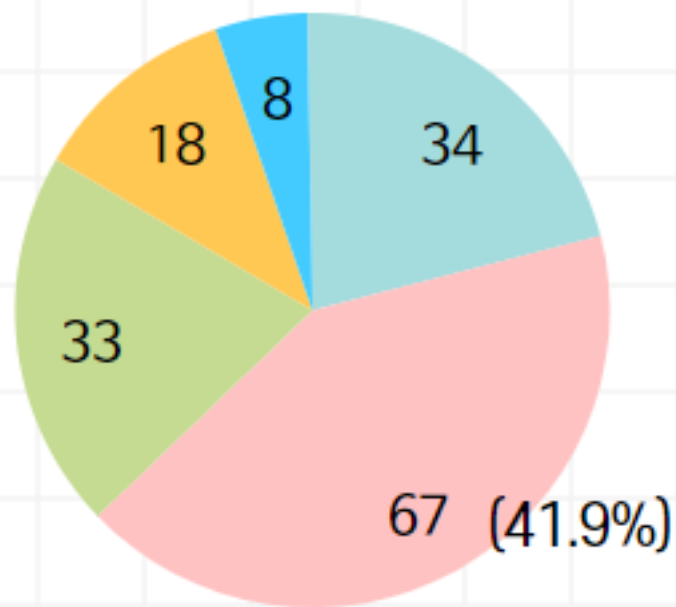
동(洞) 지역의 경우 물품 수령 있음 79명(51.6%), 없음 74명(48.4%)

읍면지역의 경우 물품 수령 있음 48명(77.4%), 없음 14명(22.6%)

동 지역의 경우 물품 수령 있음과 없음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, 읍면지역의 경우 물품 수령 있음이 77%로 동 지역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음.

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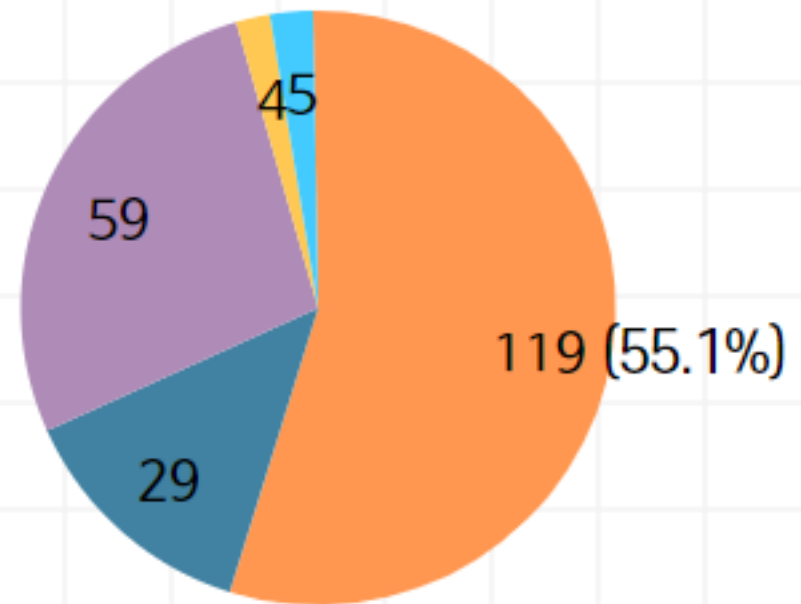
☛ '사회적 거리두기'로 인한 복지관 서비스 중단에 대한 생각



■ 매우필요 ■ 필요함 ■ 보통 ■ 필요없음
■ 매우없음

응답자 중 103명(64.4%)이 서비스 중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함.

☛ 코로나19 기간 가장 필요한 물품



■ 마스크, 손세정제 ■ 밀반찬 ■ 생필품
■ 의약품 ■ 기타

마스크 및 손세정제 119명(55.1%), 생필품 59명(27.3%)

코로나19 지속 시 지원관련

▶ '사회적 거리두기' 지속 시 복지관 서비스 운영 방향

거주지역	복지관 서비스 운영 방향					전체	P
	모두중단	1:1방식진행	재가서비스 운영	10인이하 운영	온라인 방식		
동지역	27(24.5)	9(8.2)	27(24.5)	42(38.2)	5(4.5)	110(100)	0.008
읍면지역	7(12.7)	4(7.3)	30(54.5)	12(21.8)	2(3.6)	55(100)	
총계	34(20.6)	13(7.9)	57(34.5)	54(32.7)	7(4.2)	165(100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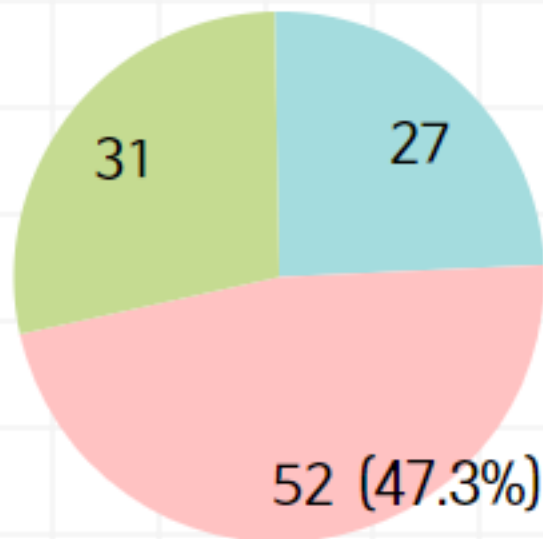
동(洞) 지역의 경우 10인이하 프로그램 운영이 42명(38.2%) 가장 높았으며, 읍면지역의 경우 재가서비스 운영이 30명(54.5%) 가장 높게 나타났다.

거주지역에 따른 복지관 서비스 운영방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코로나19 지속 시 지원관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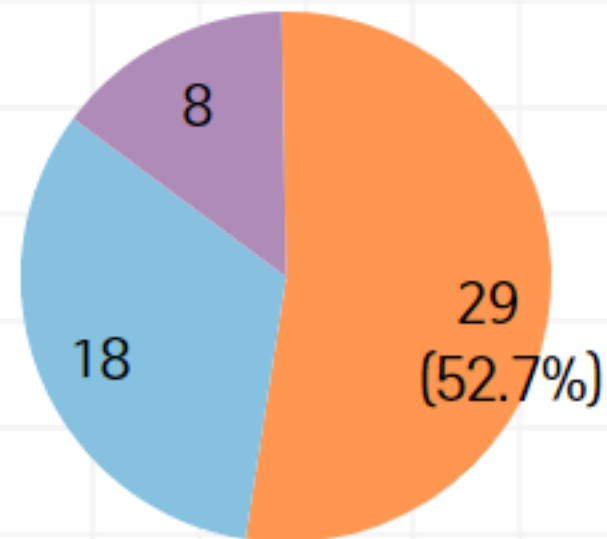
▶ 온라인 방식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의사

동(洞) 지역



■ 참여 의사 있음 ■ 잘 모르겠다
■ 참여 의사 없음

읍면 지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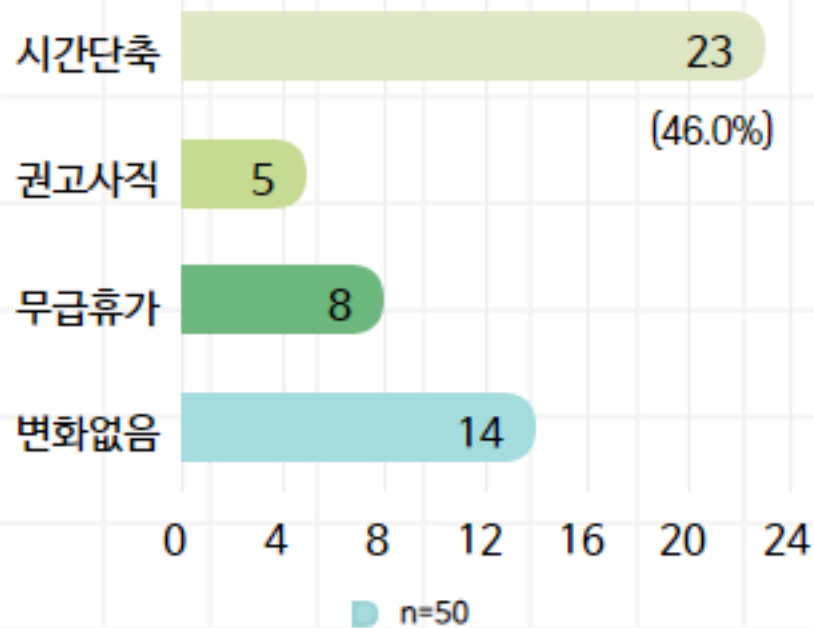
■ 참여 의사 있음 ■ 잘 모르겠다
■ 참여 의사 없음

거주지역별 온라인 방식 참여의사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.

동(洞) 지역의 경우 복지관 이용이 용이하여 온라인 방식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, 읍면지역의 경우 온라인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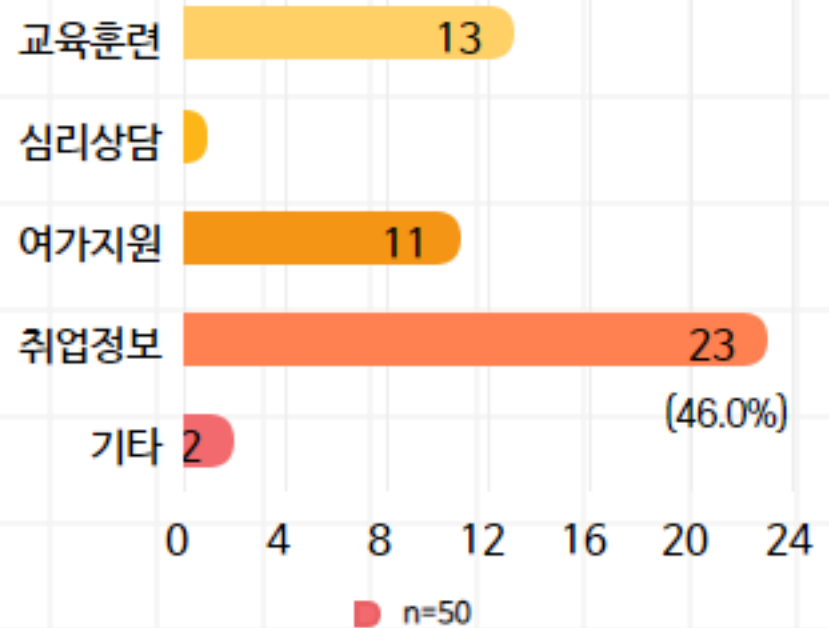
장애인 취업 영역

☛ 코로나19에 따른 취업현장 변화



근로시간 단축 23명(46.0%), 변화없음 14명(28.0%), 무급휴가 8명(16.0%), 권고사직 5명(10.0%) 순으로 조사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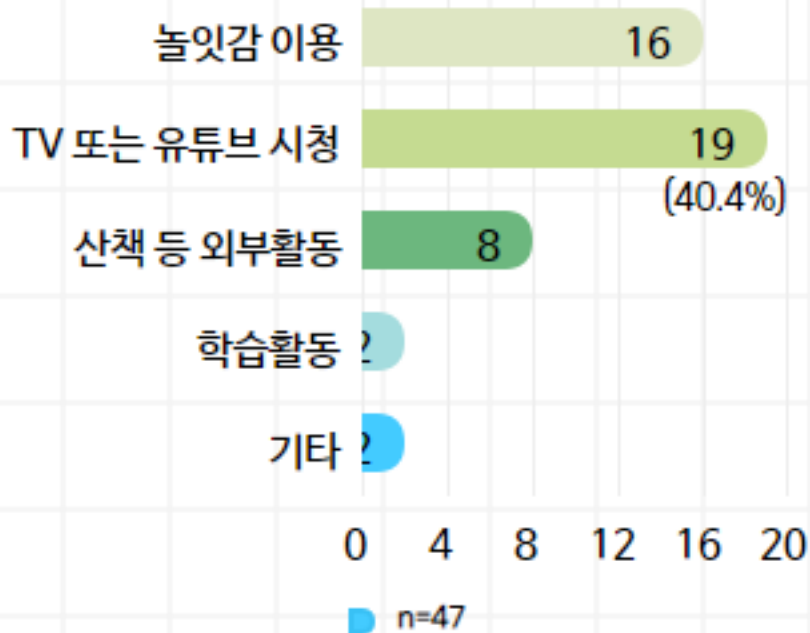
☛ 취업유지를 위한 가장 필요한 서비스



코로나19 지속 시 취업유지 위한 서비스는 취업정보제공 23명(46.0%), 교육훈련 13명(26.0%), 여가지원 11명(22.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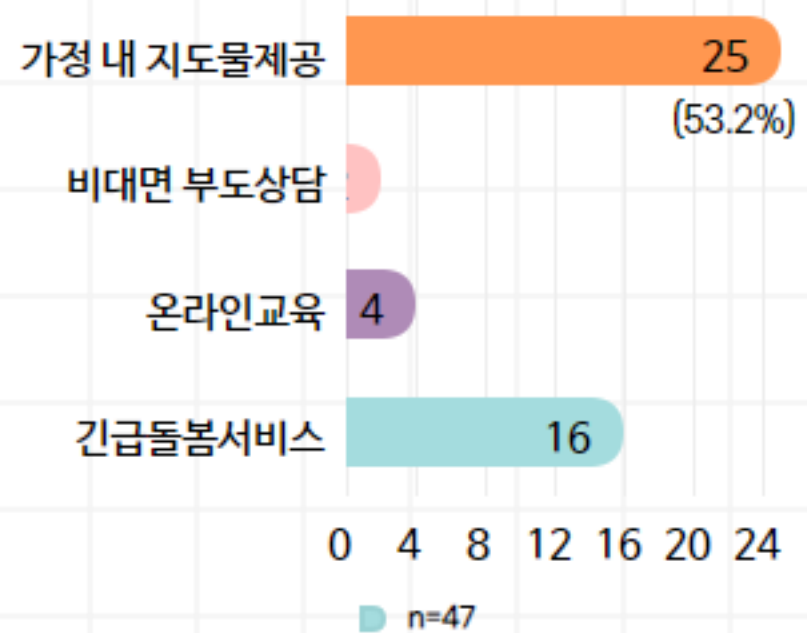
장애아동 영역

휴강기간 자녀와의 주된 활동



TV 또는 유튜브 시청 19명(40.4%), 놀잇감이용 16명(34.0%), 산책등 외부 활동 8명(17.0%) 순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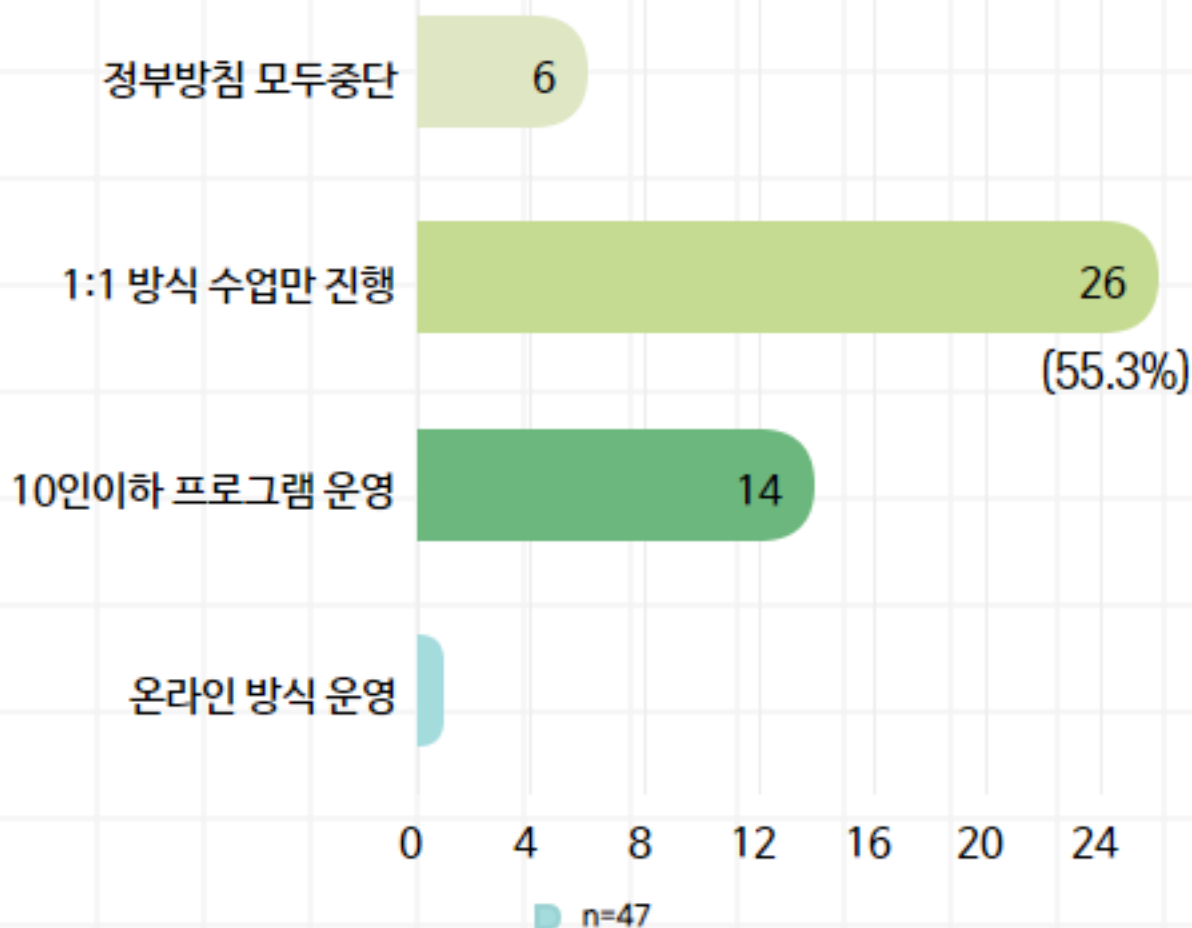
'사회적 거리두기' 장기화 시 가장 필요한 서비스



가정 내 지도물 제공 25명(53.2%), 긴급돌봄서비스 16명(34.0%)

복지관 휴강에 따른 장애아동 영역

☛ '사회적 거리두기' 장기화 시 복지관 서비스 운영 방법



1:1 방식 수업만 진행 26명 (55.3%), 10인이하 프로그램 운영 14명(29.8%), 정부 방침 모두중단 6명(12.8%) 순으로 조사되었음.

제언

첫째. 재난상황에서의 방역 및 긴급물품의 효율적 지원 방안 모색

가장 큰 어려움점 결과 외부활동 어려움(27.3%), 의료용품 구입 어려움(16.2%)

둘째.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비대면 서비스 체계 개발

온라인 방식 도움(32.1%), 온라인 방식 프로그램 참여 의사(33.9%)

셋째. 장애인 근로자 지속적인 직업유지를 위한 지원책 마련

장애인 근로자 욕구 취업정보제공(46%), 교육 및 훈련(26%), 여가서비스(22%)

넷째. 복지관 휴강 시 발달장애 아동 지원 대책 마련

가정 내 지도를 제공(53.2%), 긴급돌봄서비스 제공(34.0%)



코로나19 '사회적 거리두기'기간

**복지관 이용자 생활실태
및 욕구조사**

응원합니다!